

전기료 '원상 회복'에 물가 부담 피할 수 없다

4인 기준 月 1050원 늘어...농가·산업계 등 부담 가중 정부 "요금 급상승 없도록 가스요금 동결 등 관리 만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계속되는 '물가 안정' 압박 속에서도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원가 반영'을 택했다.

23일 한국전력이 올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하면서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이 확정됐다.

올해 1분기부터 연료비 조정 단가를 kWh당 3원 인하하던 것을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 회복'했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전남 주택용 전기 이용객 115만7237호는 1151억 3500만원 상당 전기를 썼다.

당당 월 평균 전기요금은 3만346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861원)에 비해 4.9%(-1700

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당장 10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내면 매달 최대 1050원씩 오르게 된다.

실제 지난 2013년 11월 전기요금 5.4% 인상이면서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 오르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남 물가 상승률이 3월 2%대에 접어들어 6개월 연속 2~3%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오는 4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다.

주택용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31만여 농가는 월 평균 3640원 낮은 전기요금을 내왔지만 겨울철을 맞아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7월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일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동결했지만 2개월마다 산정되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상승 추세로,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계도 8년 만의 전기료 인상을 반기지 않는 눈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4분기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특히 제조업가 대비 전기요금 비중이 15% 정도인 뿌리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현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기초가 지속적인 요금 인상을 이어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한전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제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요금 상승규모가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반기 고물가 현상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고려할 때 올해 4분기 전기료 인상이 연간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75%포인트(p) 수준"이라며 "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요금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요금에 일시에 오르면 부담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0월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코스피 3127.58 (-12.93)
 한국 코스닥 1036.26 (-9.86)
 금리(국고채 3년) 1.558 (+0.023)
 환율(USD) 1175.50 (+0.5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3127.58 (-12.93)
- ↓ 코스닥 1036.26 (-9.86)
- ↑ 금리(국고채 3년) 1.558 (+0.023)
- ↑ 환율(USD) 1175.50 (+0.50)

'형다 우려' 코스피 하락

중국 형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 공포가 세계 증시를 강타한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23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93포인트(0.41%) 내린 3127.5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6.87포인트(0.54%) 내린 3123.64에서 출발해 약세 흐름을 지속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02억원, 227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인 5591억원을 순매수해 증시 하단을 지지했다.

앞서 한국 증시가 휴장한 추석 연휴 기간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형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미국과 아시아 각국 증시가 급락했다.

그러나 형다가 위안화 채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전날 공시하면서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된 가운데 거래를 재개한 국내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은 면했다.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 10원 이상 급등해 118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급등세가 진정돼 0.5원 오른 1175.5원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86포인트(0.94%) 내린 1036.26으로 마감했다.

농어촌공사·전력거래소 '상생 인색'

상생결제액 비중 1% 미만...한전 18.8% 대조적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전력거래소의 상생결제액 비중이 1%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대기업 등 구매 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24개 중 지난해 물품·용역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 비중이 1% 미만인 기관은 1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는 농어촌공사, 전력거래소와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관리공

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 감사대상 33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생결제를 도입한 나주 혁신도시 기관은 한국전력, 한전 KDN, 농어촌공사, 전력거래소 등 4곳이다.

한전은 지난해 구매액 3조3465억원 가운데 18.8%에 달하는 6300억원을 상생결제했다. 한전 KDN 상생결제 비중은 51.7%(1134억원 중 586억원)에 달한다.

신정훈 의원은 "대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부진은 예전부터 제기됐지만, 정작 공공기관 역시 제자리걸음"이라며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아온 가족자켓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4층 여성 의류 '보브' 매장서 올 가을에도 북고 유행을 타고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가족 소재 자켓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광주·전남 외국인 주택 보유 급증

올해 1536호...5년새 88.5% 늘어

올해 광주·전남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1500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88.5%(721호) 늘어난 수치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은 광주 532호·전남 1004호 등 1536호로 집계됐다.

5년여 전인 2016년 6월에 비하면 광주는 217건

(68.9%), 전남은 504건(100.8%) 증가했다.

올 8월 기준 외국인인 보유한 광주 아파트는 416호, 단독주택은 99호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아파트 620호, 단독주택 324호가 외국인 소유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6년 4만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만6865호, 2018년 5만 5153호, 2019년 6만2735호, 2020년 6만9526호, 2021년 8월 7만7692호로 증가했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www.uwayapply.com

www.uwayapply.com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형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